

<교과서 120쪽> 一技一能, 人皆有之.

위 문구는 송덕상(宋德相)의 果菴集(과암집)에 담긴 경연 글에서 유래하였다. 그 전후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전 일부 및 해석]

通儒全才는. 固是不世出之人也나. 至於一技一能은. 人皆有之라. 此所謂愚者도 亦有一得者也라. 是以從古名碩之陳勉于君上者라도. 其言皆以爲棄其所短하고. 取其所長云이러라. 昔宋司馬光十科之制에도 亦言之하니. 其意亦在於廣求俊乂라. 或不足於此者라도. 不無優餘於彼故也니. 今不必定以科目而取士라.

통유와 같이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 나오기 힘든 사람이나, 하나의 기예와 재능에 이르러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저명한 큰 선비가 임금에게 진술하더라도 그 말에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예전에 송나라 사마광의 십과 제도에서도 이를 언급하니, 그 취지는 널리 뛰어난 인재를 구하는 데 있었다. 혹 이것에 부족하더라도 저것에 넉넉함이 없는 것이 아니니, 지금 반드시 과목을 정해서 인재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 파악 및 해설]

通儒(통유)는 고금에 통달하고 학식이 깊으며 넓은 선비이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드물다고 말하면서, 사람마다 각기 하나의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의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사고를 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던진 그 한마디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한다. <漢書 韓信傳>의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한 번의 실수가 있고[智者千慮 必有一失],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에 좋은 생각(한 번의 얻음)이 있다[愚者千慮 必有一得]’는 말이 떠오릅니다.